

지역단위노조의 현황과 과제

정 순 재(서울지역인쇄노조 위원장)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형태인데 이와는 다른 지역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가 존재한다. 지역단위노조는 특정 지역의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단위노조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50여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제대로 활동하며 남아있는 노동조합은 40여 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 지역노동조합들은 조합간판을 내리거나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역단위노조들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형편이다.

그러면 왜 지역단위노조운동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퇴조현상까지 보이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분석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사업방향의 문제가 있다.

지역단위노조는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중간형태인 과도적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노동조합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노동조합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단위노조의 사업을 보면 기업별노동조합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기업별노조의 일상활동과 다름없는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수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60~100명 정도의 조합원만이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 지역단위노조의 현실이다.

둘째,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문제이다.

지역단위노조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써야 하며 상근자들의 월급도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는 상근자들의 월급은 고사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상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단위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지역의 동부급속같은 경우 95년도에 상근자를 한 명도 두지 못하고 위원장마저도 상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유는 당연히 상근비문제이다. 96년 들어와서야 위원장만이 어렵게 상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근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지역단위노조 상근자들의 공통의 문제이며,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조합원들의 성향문제이다.

지금의 지역단위노조 조합원들을 보면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점은 지역단위노조 활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들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단위노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연대투쟁이나 조합 내 활동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장의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이렇다 보니 외형상의 조합은 튼튼해 보이는데 조합원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조합의 조직을 확대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조합이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은 노동조합의 생명인데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단위노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넷째, 분회조직이 깨지고 있다.

지역단위노조 건설 초기만 해도 분회건설사업은 조합의 주요한 사업이었다. 많게는 20~30개 적게는 10여개의 분회를 각 지역단위노조마다 건설했다. 그러나 현재 청계노조의 분회 4~5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단위노조들의 분회마저도 깨져버렸다. 그나마 청계노조의 남은 분회들마저도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다. 이유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건설되었던 많은 분회들이 자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져나가고 그나마 조합에서 조직적으로 건설했던 분회조차도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도가 나가거나 현장활동가들이 직장을 이동하면서 깨져가고 있다. 또한 분회자체가 지역단위노조의 조직이라 할지라도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의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조합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현재의 지역단위노조는 현상유지만 하고 있어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도해 볼만한 내용은 있는 것 같다. 그 하나가 남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노조통합추진위 형태의 노력을 통해 기업별노조의 벽을 허물면서 단일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부급속노조, AMK, KDK, 도신, 엘코아, 세풍전자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노조통합추진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지역단위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 산업별 노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단위노조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단위노조 또한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가 모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지역단위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단위노조가 분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지역단위노조가 분회간의 협의체 정도의 수준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 지역단위노조가 단일한 산별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회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의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지부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역단위노조는 활동과 사업이 특정지역(조합사무실이 있는 곳)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활동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쇄노조같은 경우 사무실이 울지रो에 있다 보니 울지रो의 인쇄노동자들만의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인쇄노동자들은 울지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수, 원효, 영등포, 구로동 등지에 넓게 퍼져 있다. 이런 상황은 인쇄만이 아니라 섬유, 금속, 화학 모두가 마찬가지다. 이제 활동의 영역을 넓혀서 지역지부건설을 통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단위노조 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 연맹들은 주요사업 계획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노총 소속 지역단위노조들은 각 연맹에 끌려오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각 연맹의 소속 지역단위노조에 재정과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고 민주노총과 연맹 또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지역단위노조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 또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외에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겠으나, 당장 어떠한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굳이 방법을 더 찾아본다면 지역노조연대회의를 강화하여 공동의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노조연대회의에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 사회복지에서 외면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 부분이 당장에 조합의 조직적 성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백만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이후 이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로조건 격차도 크게 나고 있다. 지역노조연대회의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노동자들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100인 이하의 사업장인데 대기업과의 엄청난 임금격차는 노동자들간에 심각한 생활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노동운동이 중소기업사업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 조직되어 있는 120만 정도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노동조합운동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사업장의 문제와 이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단위노조문제를 노동조합 그 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